

《축 사》
《祝 辞》

정 화원
鄭 和元
국회의원
韓國 国会議員

축 사



정 화원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제5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신 공생복지재단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일 양국의 오늘의 만남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어 그동안 사회복지행정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기준도 원칙도 없는 지방 이양 사업은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류기준의 불분명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용으로 전락한 사회복지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또한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증가한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공생시대에 직면하여 국제적 시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체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의 부당함을 본 의원 또한 국정감사 및 각종 공청회 및 간담

회 등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준비 안 된 지방이양사업의 환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아무쪼록 학계와 실천현장 그리고 정부 등 각 분야의 모든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심포지엄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폭 넓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祝 辞



鄭 和元

韓国 国会議員

保健福祉委員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

まず始めに、第5回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晩秋の中、このような貴重な場を作って下さった共生福祉財団理事長様をはじめ、職員皆様の労苦に感謝し、韓日両国の出会いが大きな成果を上げることが期待します。

わが国の地方自治制度が施行されて12年、今までの社会福祉行政の中心が中央から地方に移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基準も原則もない地方移譲事業は数多くの問題点を露出しております。地方移譲事業と国庫補助事業に対する分類基準の不明明性、地方自治団体長の選挙用に転落した社会福祉事業などがその代表的なことであり、また受益者に実質的に福祉サービスが形成されているのかさえわからない場合もあります。

又、韓国は急増する外国人100万人時代を迎え、多文化共生時代に直面し国際的視野から社会問題を解決する社会福祉士（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がより強調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現在の状況では社会福祉サービス本来の役割すらもあやうい状況です。

政府の地方移譲事業の不当を本議員も国政監査、各種公聴会及び懇談会などで再三言及しました。今後とも準備されてない地方移譲事業の還元のために、持続的に努力

してまいります。

本日のこの席が韓日両国の共通の関心事として、学会と実践現場、そして政府など、各分野の全ての当事者が積極的に参加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開かれたシンポジウムの真髄が見られ、また、多様な参加者の幅広い討論を通じて、新しい展望が提示できるように望み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